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751>

JCCT 2023-11-89

##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on Human Rights Awaren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박주종\*, 박선주\*\*, 김 인\*\*\*

PARK JU JONG\*, PARK SUN JU\*\*, KIM IN\*\*\*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418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참여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인권의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elderl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18 seniors aged 65 and above residing in 14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buk-do.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the highe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the higher the human rights awareness. Second, self-esteem of the elderly indirec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Key words** : social participation, self-esteem, human rights consciousness

#### I. 서론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2025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1]. 고령화의 빠른 속도는 새로운 노인문화나 정책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으나, 노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보장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다[2]. 노인은 은퇴로 인한 일자리 상실, 돌봄 및 부양 문제, 편견이나 소외, 학대와 같은 문제에 당면하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여있다[3].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는 개인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4][5].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복지수준이 노인의 기본인권 보장에 있어 매우 열악한 것을 방증하며, 노인의 인간다

본 연구는 2021년 한일장신대학교 박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5, 2023

\*정희원,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제1저자)

\*\*정희원, 전북대학교 강사 (공동저자)

\*\*\*정희원,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inkim65@hanil.ac.kr

Dept. of Social Welfare, Haniljangsin Univ, Korea

운 삶 영위를 위한 노인인권이 시급히 증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노인인권 침해 인식은 당사자인 노인층보다 청장년층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층이 직접 체감하는 것보다 이를 바라보는 청장년층의 높은 시각은 노인층이 청장년층에 비해 인권의식이 낮으며, 노인층은 일제 강점기 등 시대적 어려움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므로 현 상황이 과거에 비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노인이 인식하는 낮은 인권의식 수준과 함께, 노인의 인권의식 증진에 대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6].

노인인권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2002)에서 노인들이 안전과 존엄성을 가지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적 권리와 지속적 사회참여 보장을 강조한다. 이 선언은 노인의 기본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권리, 노인차별 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사회 주요 주체인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해오고 있으나, 노인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다[7].

노인 인권은 주로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차별이나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현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8][9][10]. 이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노인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노인이 보장받을 권리 차원에서 스스로 목소리의 힘을 가질 때, 인권 관련 문제해결의 주체자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무엇보다 노인 당사자의 인권의식 함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권의식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립되고, 필연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 당사자는 물론 주변 체계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적응하는데, 대표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권리적 측면에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로 보고, 노인이 의사결

정에 참여하고, 행동함으로써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11].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노인의 사회참여는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참여, 자원봉사 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다고 보고된다[12].

한편, 자아존중감은 노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을 수용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보호 요인이 된다[13]. 특히,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에 대한 무위 문제 등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데[14], 최근에 강조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은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힌다. 즉,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고, 노인이 쌓은 지식과 기술을 타인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지역사회의 인정과 통합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15][16]. 이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노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17].

또한,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심리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자신은 물론 타인을 존중하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수용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한 개인의 인권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인권의식에 미치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단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노인의 인권의식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매개모형을 가정하고,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 인권의식

노인 인권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박수천, 2005). 노인도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노인 인권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 기준이 확립되면서 평등권, 자유권,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노인인권 측면을 반영하였다. 우리나라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에 기반을 둔 노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순돌 외, 2018).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크게 자유권, 사회권으로 보고, 일상 속에서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처럼 인권 의식은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치와 실천영역으로 일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산물이다(Sonawane, 2015). 일상 속에서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는 인권 의식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이금숙, 2020), 이는 직접적인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인권 의식이란 개인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이다(김자영, 2011). 다시 말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어떻게 인권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권 의식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 가치이기 때문에 노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노인의 권리 활동의 움직임이 전개된다. 특히, 노인인권 영역은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2002)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17)에서 사용한 6개 영역, 16개 실행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 인권영역은 건강·돌봄, 기본생활, 소득, 고용·노동 보호, 사회참여·통합, 존엄·안전 등 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리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노인인권을 여러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기적인 상호연계를 통한 다양한 권리의 총합으로 인권의 특성에 반영하는 것을 보여준다(정순돌·김미리, 2019).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대부분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화선, 2018; 김혜련, 정명숙, 2017; 김미혜 외, 2016; 남연희 외, 2012). 또한, 노인인권은 노인차별이나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에 초점을 두고(원영희 외, 2019), 사후적인 차원에서 보호와 권리를 강조하는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노인의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2.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 의식 관계

사회참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교류하면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으로 정의되며, 사회적 관계와 취업 활동, 조직화 된 단체 활동에 이르는 영역을 아우른다(Palmore, 2001). 즉, 노인에게 있어 사회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는 사회활동의 총체적 의미로서(윤종주, 1994),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치활동,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 문화활동 등 여러 형태의 참여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수영 외, 2015; 이명, 2008; 이소정, 200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개인적인 경제활동에서부터 지역사회 조직이나 단체활동,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하여 정치, 경제, 취미·여가활동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본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사회통합, 지역사회 내 연대감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며(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연계망을 확장시켜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삶에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박경숙, 2000).

또한, 사회참여는 권리적 측면에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로 보고, 노인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wring, 1981). 노인에게 있어 사회참여는 노인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의존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18].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 정책의 하나로 노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노인이 존엄성을 갖고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사회참여 보장에 대한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 경제참여, 자원봉사 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도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같은 권리와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노인의 인권을 향상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이 영위되도록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인권의식의 관계를 규명한다.

### 3.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아존중감 관계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을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감정이다[19]. 또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리는 평가로써, 항상 변화하는 감정적 결과이며, 성격, 재능, 집단속에서의 지위 등 수많은 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은 계속 변화한다[20].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빈곤, 질병, 역할상실에 따른 무위 문제 등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 스스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자신과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돌보는 참여 주체라는 권리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21].

즉, 활동이론 및 지속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이 새로운 역할과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면, 노인 스스로가 자기 의지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고취시키는 일이 가능해지며, 성공적인 노년기가 가능해질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노인은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에서 갖는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통합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22].

실제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23]. 노인은 사회참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인정과 통합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24].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에서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노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25]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가치와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는 사회참여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4.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 관계

노인에게 있어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노인의 태도에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손꼽힌다[26]. 즉, 노인이 경험하는 쇠퇴와 상실 등의 급격한 변화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능력을 수용하는 자세로 노인의 삶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27].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심리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수용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28].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어 자신은 물론 타인을 존중하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형성된다는 연구가 보고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에 관한 영향 연구는 청소년에 집중하고 있다[29][30][31]. 노인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극적인 양상을 보여주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권의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적, 실천적인 노력을 이어갈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이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인권의식의 영향변인과 함께, 단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해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노인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실천적 이론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 중 노인복지관 및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자료는 2020년 8월 1일~9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지역별 노인인구 비례에 따른 층화표집으로 수집되었으며, 회수된 1,418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훈련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가설 1]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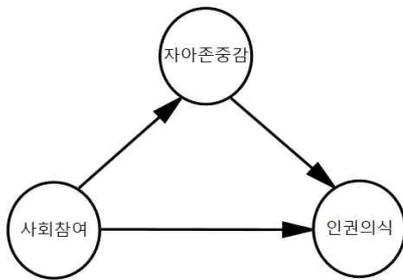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노인 인권의식

본 연구에서 노인인권 의식은 노인의 특성을 가진 개인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로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노인 인권의식은 건강·돌봄, 기본생활, 소득, 고용·노동, 사회참여·통합, 존엄·안전의 6개 권리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돌봄 영역은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신체 건강, 정신건강, 노인돌봄을 지원한다’의 총 3문항, 기본생활 영역은 ‘우리사회는 노인에게 필요한 의, 식, 주생활을 지원한다’의 총 3문항, 소득 영역은 ‘우리사회는 빈곤 예방 및 지원, 생활소득을 지원한다’의 총 2문항, 고용·노동영역은 ‘우리사회는 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근로환경, 가족 돌봄을 지원한다’의 총

3문항, 사회참여·통합영역은 ‘우리사회는 노인의 사회참여, 세대 교류 및 소통 등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총 3문항, 존엄·안전 영역은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및 예방, 생명권, 안전권 등을 지원한다’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응답 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인식하는 인권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값은 .948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척도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6개의 관측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 2) 독립변수: 사회참여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참여유형을 활용하고, 정경희[32] 등이 활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전문가와 논의과정을 통해 하위요인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정치, 경제, 취미·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활동은 투표참여, 정치참여(정치적 의견제시, 서명, 집회의 간접활동)로 구분하였고, 경제활동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개인의 소득활동 참여로 구분하였다. 취미·여가활동은 노인복지 평생교육, 취미활동, 사고모임, 자원봉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치·경제와 취미·여가활동이 단일개념으로 분석되어 항목 묶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2개의 관측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설문응답 방식은 ‘전혀 안한다’에서 ‘항상 참여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값은 .669로 나타났다.

###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scale)를 사용하였다.[33]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수용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6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인 2개 요인으로 나타나 관측변수로 투입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진다’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채점 문항은 코딩 변경을 하여 조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798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SPSS 22.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점검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이상치, 결측치 및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SEM은 측정모델 분석 후 Anderson & Gerbing(1992)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확보를 통해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외에 GFI, NFI, IFI, CFI, TLI, RMSEA, SRMR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개념신뢰도, AVE(평균분산추출)를 통해 검증하였고,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의 신뢰구간( $\phi \pm 2 \times \text{standard error}$ )이 1.0을 포함하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다섯째,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 5. 분석자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료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26명(23.1%), 여자 1,083명(76.9%)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76세~85세까지 822명(58.0%)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 78.7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 533명(37.6%), 초졸 524명(37.0%), 중졸 152명(10.9%), 고졸

145명(10.4%), 대학교 이상 39명(2.8%)이었다. 보호구분은 일반노인 826명(59.2%)이 저소득층 노인 569명(4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는 독거노인이 1,180명(84.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노인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그저 그렇다 823명(59.0%), 나쁘다 413명(29.5%), 좋다 160명(11.5%)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나쁘다 630명(45.1%), 그저 그렇다 608명(43.6%), 좋다 157명(11.2%)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326	23.1
	여자	1,083	76.9
	합계	1,409	100
연령	65-75세	424	29.9
	76-85세	822	58.0
	86세이상	172	12.1
	합계	1,418	100
학력	무학	533	37.6
	초졸	524	37.0
	중졸	152	10.9
	고졸	145	10.4
	대학교이상	39	2.8
합계	1,393	100	

구분		빈도	%
보호 구분	저소득	569	40.8
	일반	826	59.2
	합계	1,395	100
가구 형태	독거	1,180	84.2
	동거	221	15.8
	합계	1,401	100
경제 수준	나쁘다	413	29.5
	그저그렇다	823	59.0
	좋다	160	11.5
	합계	1,396	100
건강 상태	나쁘다	630	45.1
	그저그렇다	608	43.6
	좋다	157	11.2
	합계	1,395	100

##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1) 자료검토

결측값이 있는 설문지는 목록별 제거법으로 해결하고, 다변량 이상치 점검을 위해 Amos의 Mahalanobis의 거리제곱을 확인하여 기준( $p > .05$ )보다 높게 나타난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또, 주요 변수들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주요 변수들의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고 West, Finch & Corran(1995)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각 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투표참여, 정치참여, 노인일자리, 개인소득 활동의 관측변수와 평생교육, 취미활동, 사고모임, 자원봉사활동의 관측변수가 단일개념으로 분석되어 2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정치·경제와 취미·여가로 각각 항목목록을 통해 합성지표를 사용했다. 항목목록기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들이 단일차원성을 가진다는 가정이 전제되며, SEM에서 많이 쓰이는 ML이 요구하는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고, 좋은 모델적합도 지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배병렬, 2017).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개별 문항을 결합하여 합 또는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측정문항의 수를 줄이는 항목목록기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6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으로 추출되어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 최종 관측변수로 합산하였다. 인권의식은 건강·돌봄, 기본생활, 소득, 고용·노동, 사회통합, 존엄·안전 등 6개의 관측변수를 그대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3) 기술통계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관측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및 첨도의 기술통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인 사회참여 하위요인 중 정치경제는 1~5점의 범위이며, 평균은 2.67(표준편차 .66)이었다. 취미·여가는 1~5점의 범위이며, 평균 2.33(표준편차 .95)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1~5점으로 평균 3.38(표준편차 .53)이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5점으로 평균 3.42

(표준편차 .61)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인권의식의 하위요소 중 건강·돌봄은 1~5점 범위에 평균 3.73(표준편차 .63), 기본생활은 1~5점 범위에 평균 3.15(표준편차 .75), 소득은 1~5점 범위에 평균 3.43(표준편차 .76), 고용·노동은 1~5점 범위에 평균 3.36(표준편차 .74), 사회통합은 1~5점 범위에 평균 3.08(표준편차 .72), 존엄·안전은 1~5점 범위에 평균 3.46(표준편차 .71)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 of main variable

주요 변수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사회 참여	정치·경제	1.00	5.00	2.67	.66	.56	.03
	취미·여가	1.00	5.00	2.33	.95	.39	-.55
자아 존중감	긍정	1.00	5.00	3.38	.53	.14	.10
	부정	1.00	5.00	3.42	.61	.02	.00
인권 의식	건강·돌봄	1.00	5.00	3.73	.63	-.37	.29
	기본생활	1.00	5.00	3.15	.75	.18	.15
	소득	1.00	5.00	3.43	.76	-.24	-.04
	고용·노동	1.00	5.00	3.36	.74	-.05	-.10
	사회통합	1.00	5.00	3.08	.72	.33	.35
	존엄·안전	1.00	5.00	3.46	.71	-.24	.28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매개모형에 투입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인권의식과 독립변수인 사회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163, p<.01$ ).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381, p<.01$ ). 또한,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214, p<.01$ )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구분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인권의식
사회참여	1		
자아존중감	.381**	1	
인권의식	.163**	.214**	1

\*\*p<.01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측정모델이 제대로 측정되었는가를 평가

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첫째,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유의성,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를 모두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69 ~ .8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의 관측 변수인 정치경제는 .569, 취미여가는 .765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관측변수인 긍정은 .862, 부정은 .575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의 관측변수인 건강·돌봄은 .732, 기본생활 .780, 소득 .868, 고용·노동 .868, 사회통합 .811, 존엄·안전은 .78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AVE)값은 사회참여에서는 .576, 자아존중감은 .765, 인권의식은 .787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CR)는 사회참여 .727, 자아존중감 .863, 인권의식 .957로 나타나 각 AVE와 CR값 각각 .5와 .7이상으로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일련의 척도들 간의 내적 상관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일치한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17).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잠재 변수	측정변수	Estimate		표준 오차	C.R.	개념 신뢰도	AVE
		β	B				
사회 참여	정치·경제	.569	.520	.044	11.815***	.727	.576
	취미·여가	.765	1.000	-	-		
자아 존중감	긍정	.862	1.000	-	-	.863	.765
	부정	.575	.762	.061	12.451***		
인권 의식	건강·돌봄	.732	.695	.021	32.676***	.957	.787
	기본생활	.780	.891	.025	36.034***		
	소득	.868	1.000	-	-		
	고용·노동	.868	.981	.023	43.300***		
	사회통합	.811	.884	.023	38.430***		
	존엄·안전	.787	.848	.023	36.562***		

\*\*\*p<.001

둘째,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내재된 요인 간의 상관이 높지 않아 어느정도 다른 것으로 측정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배병렬, 2017). 이를 위해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delta^2$ )을 상회하는지 확인 하고,  $AVE > \delta^2$ 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는 .268, 제곱값은 .072로 인권의식(AVE=.787)과 자아존중감(AVE=.765)의 AVE 값보다 작아 판별타당도 기준을 만족시켰다. 사회참여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는 0.588, 제곱값은 0.346으로 사회참여(AVE=.576), 자아존중감(AVE=.765)의 AVE 값보다 작았다.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의 상관계수는 0.212, 제곱값은 0.045로 사회참여(AVE=.576), 인권의식(AVE=.787)의 AVE값보다 작게 나타나 모든 변수 쌍에서의 상관 제곱값보다 AVE가 큰 값을 보여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변수간의 판별타당성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between variables

구 분	상관계수	제곱값( $\delta^2$ )	1포함여부	판별타당도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0.268	0.072	0.248-0.288	있음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0.588	0.346	0.558-0.618	
사회참여↔ 인권의식	0.212	0.045	0.178-0.246	

다음으로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에  $\pm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한 값이 1을 포함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0.248-0.288), 사회참여와 자아존중감(0.558-0.618), 사회참여와 인권의식(0.178-0.246)은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성개념 간에 비제약(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X^2$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서  $X^2$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X^2 = 3.84$ 이상)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델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델 적합도

Table 6. Goodness of fit of measurement model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2$	P	df	$X^2/df$	GFI	NFI	IFI	CFI	RMSEA	SRMR
373.044	.000	32	11.658	.955	.947	.951	.951	.087	.030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절대적합도지수인  $X^2$  검정결과 RMSEA,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SRMR을 통해 확인하였다.  $X^2$  통계량은 373.044로 P값이 .05보다 작아서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지수는 0.08 이하이면 모집단의 근사치 오차

를 만족하며, 0.05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증분적합지수는 CFI 등의 지수를 사용하는데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0.95에 가까울수록 모형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NFI, IFI, CFI는 0.90 이상일 때 적합도가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SRMR은 공분산 잔차의 절대값을 평균한 RMR을 표준화한 통계치로 0.08보다 작을 때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X^2=373.044$ ,  $P=.000$ ,  $df=32$ ,  $X^2/df=11.658$ ,  $GFI=.955$ ,  $NFI=.947$ ,  $IFI=.951$ ,  $CFI=.951$ ,  $RMSEA=.087$ ,  $SRMR=.030$ 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적합성이 확인되었다.

4. 연구모형 검증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치인 각각의 경로계수를 통해 직접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Table 7.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사회참여→ 자아존중감	.589	.377	.033	11.558***
자아존중감→ 인권의식	.206	.305	.070	4.355***
사회참여→ 인권의식	.098	.093	.045	2.051*

\*p<.05 \*\*\*p<.001

첫째, 사회참여는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 $\beta=.589$ ,  $p<.001$ ). 즉,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206$ ,  $p<.001$ ),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참여는 인권의식에 정적(+) 영향( $\beta=.098$ ,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11.558\*\*\*),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이르는 경로(4.355\*\*\*),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이르는 경로(2.051\*)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2단계 접근으로써 구조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제안모델 적합도

Table 8. Proposal model fit

$X^2$	P	df	$X^2/df$	GFI	NFI	IFI	CFI	RMSEA	SRMR
216.619	.000	30	7.221	.972	.969	.973	.973	.066	.020

본 연구는 모델수정을 통해 외생잠재변수 및 내생 잠재변수에 연결된 경로계수를 고정화 혹은 자유화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ML을 이용하였다.  $e7 \leftarrow e9$ 과  $e5 \leftarrow e10$ 의 측정 오차 간 상관관계를 설정해줌으로써 수정구조 모델의 적합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두 모델 간  $X^2(df)$  차이가 3.84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정구조 모델을 채택하였다. 제안모델의 적합도는  $X^2=216.619$ ,  $P=.000$ ,  $df=30$ ,  $X^2/df=7.221$ ,  $GFI=.972$ ,  $NFI=.969$ ,  $IFI=.973$ ,  $CFI=.973$ ,  $RMSEA=.066$ ,  $SRMR=.020$ 으로 전반적으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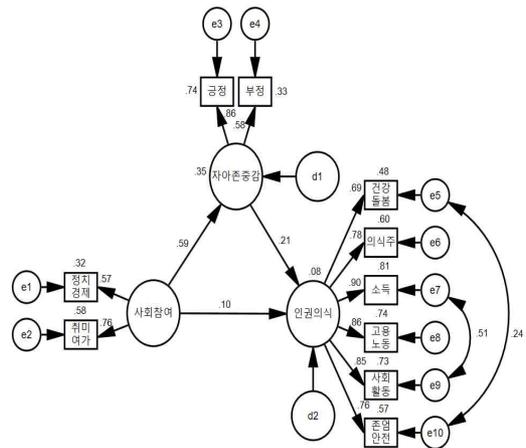


그림 2. 제안모델

Figure 2. Proposal model

5.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구조모형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확인한 제안모델의 효과 분해표는 <표 9>와 같다.

표 9. 제안모델의 효과 분해표

Table 9. The Effect Decomposition Table of the Proposed Model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사회참여→자아존중감 →인권의식	.219	.098	.121	.060~.186****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총효과 .219, 직접효과 .098, 간접효과 .121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Bias Corrected(BC)는 하한과 상한 구간(.060~.186)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p=.001).

## V.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및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1,418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참여는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영희·임우석(2020)과 심정미(2010)가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의 영향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을 경로하여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제대로 행사하는 일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김상미·남진열(2014)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회환경적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 디지털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정보제공 및 참여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낮은 경제활동 및 고용기회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영역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집단의 구조적 조직화를 형성한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스스로가 자기 의지나 믿음을 고취시켜 노후생활에서 갖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통합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노인 스스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참여 주체로서의 노인 관련 정책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토론회 및 공청회, 의회 모니터링 참여, 노인자문위원 등을 열어 노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확충, 신호등 시간 연장,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충분한 정보제공, 스마트 돌봄 서비스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을 위한 시설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입 정책이나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노인의 경우, 사회적인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노인학대 및 침해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단기성에 그치는 형식적인 교육이 제공되어 인권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노인의 인권의식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와 함께 노인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 노인복지관 및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로 한정하여 타시도 지역의 노인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인권의식은 노인의 연령층, 교육, 가치관, 성별, 지역 등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인권의식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추론되나, 다양한 노인 인구층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노인을 둘러싼 개인적, 지역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노인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이 더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권 침해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노인의 인권의식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실증적 자료 축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References

- [1] Y.R. Choi, J.Y. Oh, H.K. Park, "A Study on the Behavior of the Older Adults for Senior Leisure Welfare Facilities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8, No. 4, pp. 381-386, July 2022.
-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act-finding Survey to Prepare Comprehensive Report on Elderly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21.
- [3] Y.H. Won, "Experiences of Elderly Discrimin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ocial Welfare Policy*, Vol. 0, No. 21, pp. 319-339, July 2005.
- [4] A.R. Ryu, K.G. LEE, "The Effect of Korean-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5, pp. 349-355, July 2023.
- [5] Tang, K. & Lee, J.(2006). Global Social Justice for Older People: The Casw for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opl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6(7), 1135-1150.
- [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act-finding Survey to Prepare Comprehensive Report on Elderly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7.
- [7] Y.H. Won, S.H. Kim, H.J. Choi, "Policy Directions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Focusing on Expert Survey Research Using IPA Method.". *Supervision & Practice Research*, Vol. 0, No. 4, pp. 27-53, July 2019.
- [8] H.S. Kim, J.P. Jung, M.Y. Choi, "The Effect of Employees' Human Rights Awareness on Intention of Ill-treat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Mediating Effects of Facility Opennes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Vol. 7, No. 1, pp. 127-138, July 2015.
- [9] H.K. Choi, "A Study on Directions and Methods of Human Right Centered Social Work Practice with Persons with Dementia.". *Senior Welfare Research*, Vol. 72, No. 1, pp. 69-91, July 2017.
- [10]K.A. Jang, S.E. Heo, "Eff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Elderly on Ageism: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s Elated to the Elderl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4, pp. 168-175, July 2021.
- [11]Wring, C. A.(1981). *Children's rights*. London, UK: Routledge and Kegan Paul.
- [12]Y.H. Lee, W.S. Yi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Wareness.". *21st Century Social Welfare Research*, Vol. 17, No. 1, pp. 97-122, July 2020.
- [13]Taft, L. B.(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 [14]S.M. Yang, S.R. Hong, S.J. Hong, "A Study on Social Activities and Self-esteem of Rural Seniors.". *Rural Society*, Vol. 14, No. 2, pp. 145-178, July 2004.
- [15]W. Kim, "Ageism as a Form of Oppression: Social Welfare Responses and Implications.". *Social Welfare Policy*, Vol. 14, No. -, pp. 97-118, July 2002.
- [16]D.B. Kim, J.D. Gweon, "Human Behavior Theory and Social Welfare Practice.". Seoul. Hakjisa. 2008.
- [17]A.R. Kawk, J.W. Park, J.H. Park,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Factors on Self-esteem in the Elderly.". *Social Welfare Counseling Research*, Vol. 3, No. 1, pp. 5-32, July 2018.
- [18]Rowe, J. W. & Khan, R. L.(1998). Successful Aging. NY: Pantyeon.[39] Rowe, J. W. & Khan, R. L.(1998). Successful Aging. NY: Pantyeon.
- [19]Rosenberg, M.(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40] Rosenberg, M.(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 [20]U.Y. Kim, "The Effect of the Self-growth Program on the Self-esteem of Inadaptive Student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0.

- [21]B.S. Yoo, H.S. Lee, "A Critical Study on the Discourse of the Elderly,".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61, No. -, pp. 27-53, July 2021.
- [22]Y.K. Koh, "Measures to Revitalize Senior Volunteer Activities,". *Elderly Welfare Research*, Vol. 6, No. -, pp. 133-176, July 1999.
- [23]C.H. Bae, "The Effects of Social Engagement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Successful Aging,". *Korean Society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 9, No. 1, pp. 41-67, July 2020.
- [24]D.B. Kim, J.D. Gweon, "Human Behavior Theory and Social Welfare Practice,". Seoul. Hakjisa.2008.
- [25]A.R. Kawk, J.W. Park, J.H. Park,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Factors on Self-esteem in the Elderly,". *Social Welfare Counseling Research*, Vol. 3, No. 1, pp. 5-32, July 2018.
- [26]Taft, L. B.(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 [27]M.S. Yoon, M.S. Lee,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Happiness among the Elderly,". *Korean Gerontology*, Vol. 32, No. 2, pp. 397-413, July 2012.
- [28]D.J. Hwang, H. Song, S.H. Kim,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Education on Adolescents' Awareness of Human Right: Focusing on the Mediator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10, pp. 77-100, July 2015.
- [29]S.A. Bang,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Abuser Experiences and Discrimination Victim Experiences on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s at Community Children Center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4, No. 5, pp. 163-170, July 2019.
- [30]J.W. Cheon, S.H. Park, "A Study on the Impact of Youth Social Capital on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Youth Facility Environment*, Vol. 14, No. 4, pp. 151-161, July 2016.
- [31]A.N. Hyun, "The Role of Human Rights Friendly Parental Attitudes and School Environments in Adolesc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0, No. 35, pp. 187-212, July 2016.
- [32]J.H. Jung, "Changes in the Living Profiles of Older Persons and Policy Issu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016, No. -, pp. 7-17, July 2014.
- [33]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In Conceiving the self* 318-318.